

데스크 시각

국회의원 재보선, 남은 숙제는



박치경 편집부국장

‘총선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광주 서구을을 비롯한 전국 4곳에서 밤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의 당락은 날이 바뀌기 전 결정될 것이다.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야 말할 나위 없고, 유권자들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승패에 따라 후보들의 정치 인생은 물론이려니와 정국도 커다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남은 숙제가 많다. 이번 재보선에 실린 정치적 집이 가볍지 않았던 만큼 ‘공약’을 쉬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들여다 보자. 당의 ‘모태인’ 광주 서구을을 비롯한 서울 권역을, 인천 서·강화읍, 성남 중원 등에서 받

은 성적표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를 면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뒷밭인 광주 서울에서의 민심 향배는 더더욱 중요하다. 광주 서울의 경우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가 무소속 전정배 후보와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누가 이기더라도 표차는 그리 많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쏟아진 장밋빛 공약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민심을 냉정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1년 후 총선 승리와 2년 남짓한 19대 대선에서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지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가늠해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재보선 기간에 여섯 번이나 광주를 찾았다. 문 대표는 지열 유세에서 출근 ‘변신’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새정치연합이 혼신의 각오로 변하고 있다. 당내에서 게파란 말이 사라지고 있고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 원칙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에 힘을 모아주면 2017년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문 대표의 약속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구호였는지, 정말 환골탈태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호남 정치를 살려내고 야당에 회초리를 들어 야권의 전면 쇄신을 촉발하고 정권교체의 밑알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정배 후보도 선거 후 과제가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을 박차고 나와 죽기 살기로 뛰었던 정신을 살려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거 후 자신의 약속이 충실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냐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 후보는 스스로 다짐했듯이 정치개혁과 호남정치 위상 회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

당락 떠나 약속 지켜야

다음은 새누리당. 광주 서울에 나선 정승 후보는 ‘공주발전 딱 1년만 써보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힘 있는 여당후보를 밀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보자는 주장이다. 나름대로 지역에 밀착된 공약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다. 더불어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도 아끼

않았다. 김부성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수시로 광주를 찾아 유세와 함께 큼직한 지역발전 공약도 선물했다. 특히 김부성 대표는 “정승 최고위원, 호남총리론”을 공표했다. 가뜩이나 지역 인물난에 가슴이 허허로운 호남인들은 귀가 솔깃해졌다. 마침 이완구 총리 사표가 수리되고 새로운 총리 인선이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또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나고 ‘성완충 스캔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여론 전체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역설한 강은미 정의당 후보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 사회소외계층의 대변자로 나서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박수를 받았던 강 후보인 만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도 급세 잊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되새기기 바란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약속은 신문의 기사에 고스란히 남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의 뇌리에 도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을. /unipark@kwangju.co.kr

社說

호남고속철 증편·2단계 사업 조속 추진을

호남선 고속철도(KTX)가 개통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예상했던 대로 승객이 크게 늘었다. 개통 이후 1일 이윤객이 3만2772명으로 이전에 비해 33.1%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비싼 요금과 운영 편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용산~광주 승정 간 4만6800원에 이르는 요금은 너무 비싸다. 따라서 오송역 우회 분기로 늘어난 19km 구간 요금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이용객이 늘면서 평일에도 매진 시레가 이어져 증차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마침 호남과 충청 지역 7개 시·도지사가 만났다는 소식이 있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편수를 수요 증가에 걸맞게 증편하고, 광주 승정~목포 간 2단계 사업의 기본계획을 나주·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등 몇 개 항에 합의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호남과 충청 간 이해 충

돌로 호남고속철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매우 고무적이다. 공동합의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양 지역의 활발한 교류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요금과 증편 문제 외에도 서대전 경유 KTX가 익산에서 끊어진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는 “길은 통해야 한다. 끊어진 길은 이어져야 하고 없는 길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남선은 목포·여수까지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계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의 연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화해의 몸짓이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호남고속철 증편과 무안공항 경유 2단계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패가망신 뻔히 보면서 음주운전 하더니

하루 평균 21.3명, 한 달 평균 663명, 1인당 벌금 159억 원...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광주지역 음주운전 통계 수치다. 이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일컬어지는 음주운전을 거り낌없이 하는 광주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이하의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4040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3919건에 달했다. 1인당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가정하면 음주운전 벌금이 15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지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만 1만405건으로 하루 28.5명, 한 달에 869명이나 됐다. 전체 면허 취소자(5437건)의 11.7%에 달하는 637명은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몸을 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음주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경우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 296건의 음주운전사고로 4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얼마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주유소로 승용차가 돌진해 7명의 부상자를 냈던 아산 ‘주유소 습격’의 공통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낮은 준법식 때문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 무서운 흥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범죄이자 자살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경찰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도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장수시대 위기의 부부



송민석 전 여천고등학교장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60~70년대 고도성장시대 ‘일벌레’였던 일본의 남편들이 은퇴와 동시에 이혼을 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퇴직 후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비에 젖은 낙엽’에 비유했다. 빗자루로 쓸러고 해도 쓸리지 않는 귀찮은 존재에 빗댄 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없으면 제발 죽겠다.”라며 황혼이혼을 채근하는 아내의 푸념 소리를 듣고 사는 지인을 생각하면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가 떠오른다. 표범이나 하이어나와 같은 적으로 부터 평생 무리를 보호하던 톱재 종던 수사자는 늙고 힘이 빠지면서 젊은 수컷에게 자리를 내주고 쫓겨난다. 사냥할 힘이 없는 수사자는 혼자 해마다 결국 굶어 죽고 만다. 늙고막에 버림받는 남편들이 그 꼴이 아닐까 싶다. 이 중심에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겪는 혼란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일 농자 숨 농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은퇴 후 1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남성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와이프가 있어야 한다는 농담도 있다. 여자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강할 수 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 이혼율이 신혼 이혼율을 앞질렀다.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황혼이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다.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까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작년 7월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마당이다. 앞으로 황혼이혼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장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균 수명이 짧던 시절에는 황혼이혼은 생각지도 못했다. 물론 이혼이란 부부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의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황혼이혼 증가 원인 중의 하나가 ‘100세 시대’ 수명 연장의 결과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수 만세’가 ‘장수 재앙’이 되는 현실이 매우 곤혹스럽고 혼란스럽다.

‘노후를 따뜻하게 지내려면 젊은 시절에 난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독일 속담이 와 닿는 요즘이다. 젊어서 자식 키우는 데만 열중했지, 부부간 결속과 사랑을 다지는 데는 소홀히 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남편들의 변화가 없다면 황혼이혼은 막을 수 없는 물결로 다가올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도 훨씬 크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황혼이혼의 위기를 피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사막에서 차가 빠져나오려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듯 부부 갈등의 사막에서 나오려면 자존심이라는 바람부터 빼야 한다. 남자가 먼저 과거의 권위와 아집을 내려놓고, 부부가 공평해지는 것에서부터 장수시대 부부갈등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새로운 고용트렌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나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지원하고 노사정의 협력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더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즘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시간선택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서 도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복리후생에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다.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와 퇴직을 앞두고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장년층,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노동표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고용활이란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 중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정도를 보여준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일하는 방식과 근로

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정책 추진 행보에 발맞추어 시간선택제 도입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휴먼파워에서 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가 적합한 서비스 접수사원과 자재관리사원에 작년부터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고 있고, 해피뷰병원은 피크타임 업무 해소를 위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했다. LG텔레콤고객센터인 ㈜아이텔레서비스는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년 시간선택제 상담원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시간선택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적합 직무 부족’, ‘인력 운영의 어려움’, ‘업무연속성의 단절’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선택제는 여전히 생소하고 도입하기 까다로운 근로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좀 더 쉽게, 안정적인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구직자와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시간제 근로는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도입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면서 시간선택제가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트렌드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시간선택제가 활성화되려면 공공부문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충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복리후생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전일제근로자도 육아, 돌봄, 학업, 퇴직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가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본다.

無等鼓

치킨 프랜차이즈기업 제너시스 BBQ 율흥근 회장의 고향은 순천이다. 지금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으로 변했지만 윤 회장이 태어날 당시에는 등산בל로 공부를 했을 정도로 외딴 곳이었다. 그는 파평 윤씨의 부잣집 종손으로 어릴적에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 3대가 함께 살았는데 늘 증조모와 겸상을 받을 정도로 어린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소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어린이와 주부를 타겟으로 삼아 최고 품질의 치킨을 만들어 ‘레드오션’인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최고가 됐다. 브랜드를 BBQ로 한 것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 즉 ‘Best of Best Quality’로 하겠다는 다짐에서였다. 율흥근은 국민야식인 치킨을 지구촌 야식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2003년 중국 진출 이후 현재 57개 국에 5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120개 국에 3만 개의 가맹점을 가진 맥도널드에는 못 미치고는 있지만 치킨 한류(韓流) 치킨만 콜리웃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꿈은 접지 않았다. 율흥근의 ‘치킨 한류(韓流)’가 미국 내 프로스포츠 경기장까지 진출하게 됐다. 미국 프로야구(MLB)와 프로풋볼(NFL), 프로농구(MBA) 등 92개 경기장에 BBQ 치킨매장을 내기로 했다. 미국 경기장에서만 연간 2조4000억 원의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빅백’ 지수(각국 빅백매출)도 그 나라의 구매력과 통화가치 평가’를 대체하는 ‘BBQ지수’가 나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치킨 한류(韓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